

萬海 韓龍雲 연구 어디까지 와있나

일제강점기부터 80년대까지 만해연구의 시기별 특징과 문제점

金載弘

경희대 교수 · 국문학

연전에 印權煥교수는 '萬海學'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만해연구사를 개괄한 바 있다(졸저 「한용운문학연구」(一志社, 1982)서평, 월간조선 1982. 9).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불교사상사, 민족운동사, 문학사에 걸쳐 최대 인물의 하나라고 할 만해에 대한 연구가 학문적 체계화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적절히 표현한 말이라고 하겠다. 그만큼 한용운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에 걸쳐 여러가지 방법론으로 친착돼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리라.

그렇다! 한국 근세사에 있어서 만해만큼 입체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커다란 자취와 영향을 남긴 인물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에 관한 연구도 그 어느 인물보다도 풍부하고 다양하게 전개돼 있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그에 관한 대소논문은 80년 초까지 약 300여 편에 이르며(「한용운사상연구」 「한용운 문학연구」참조), 오늘에 이르러서는 400여 편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로 이러한 연구량은 연구사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 만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는 사실이라 하겠다.

대체로 만해연구는 그 연구방향에 따라서 불교사적 연구, 민족운동사적 연구, 그리고 문학비평 내지 문학사적 연구의 세 갈래로 나뉘 볼 수 있다. 어림잡아 그 분포는 문학연구가 가장 대종을 이루며, 민족운동사 내지 역사분야가 약간, 그리고 불교학쪽이 가장 적은 편이라고 여겨진다(한 보도에 의하면 문학연구가 90%, 역사분야가 7% 및 불교학분야가 3% 정도 된다고 한다. 「법보신문」1991. 3. 4일자). 문학연구가 그 대종을 이루는 까닭은 문학이 비교적 대중적 전파력이 강하고 텍스트가 확정돼 있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문학연구가 그 양만큼 질적 고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하겠다.

해방후 부각되기 시작한 만해연구

만해연구를 시기별로 조감해보면 그 연구의 특징 및 의미와 문제점이 드러난다. 특히 문학연구에 있어서는 시대상황 및 그 정신사적 굴곡까지도 유추해낼 수 있어서 관심을 끈다.

일제강점기에 있어 만해연구는 이렇다 할 것이 없다. 다만 독후감류의 글(주요한 「님의 침묵 독후감」(시대일보 1926. 5. 31)이 한두편 발견될 뿐이다. 독립투사로서 만해가 퍼낸 시 20 출판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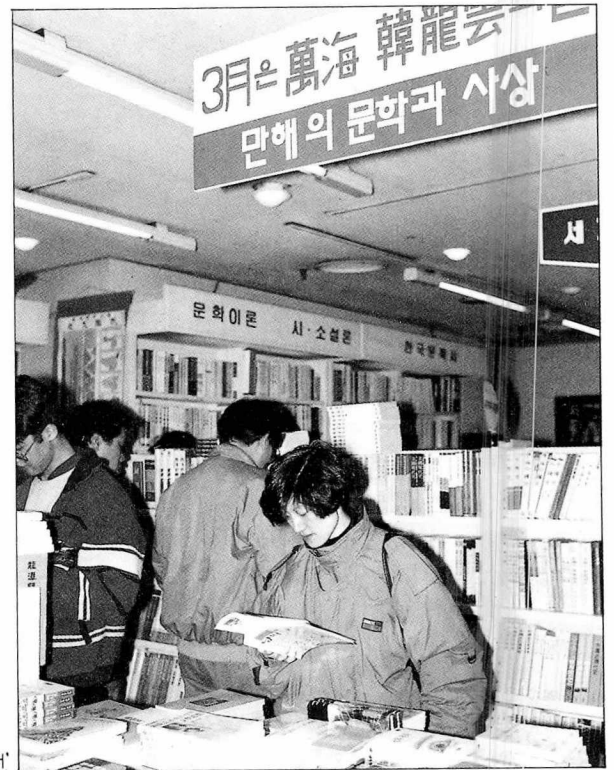
집 「님의 침묵」이기도 하기 때문이었겠지만, 만해가 문단권 밖의 인물이었기에 당대의 문단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 자명한 이치라 하겠다.

1944년 6월 29일 만해가 입적한 후 일년여가 지나서 8·15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이로부터 만해와 그 문학에 대한 관심이 비로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위당 정인보가 「해방기념시집」에 「風蘭花매운 쉼내」로서 만해추모 시조를 발표하고 김법린, 최범술, 조지훈, 홍효민, 조종현 등이 애국지사로서의 만해, 문학인으로서의 만해를 거론함으로써 만해는 비로소 민족과 문학의 지평 위에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대부분 회고담, 추모사류의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게 특징이라고 하겠다.

1957년 서정주가 편찬한 「한국시인전집」(학우사)에 「한용운편」이 수록되면서 문학인으로서의 만해가 빛을 보기 시작한다. 아울러 정태용, 조연현, 조지훈 등이 문학적인 관심을 표하면서 만해는 문학의 영역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학인으로서의 만해는 1960년 간행된 박노준·인권환의 「韓龍雲研究」(통문관)에서 하나의 집대성을 이룬다. 생애·사상 학문편, 불교에 관한 연구, 문학에 관한 연구, 독립투쟁에 관한 연구, 일화를 통해본 인간 만해 등으로 짜여진 이 연구는 만해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초의 단행본 연구서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종합적인 시각의 총체성과 각론적인 심도에 있어서도 단연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연구는 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다 정밀한 시각과 체계적인 방법론을 결하고 있는 것이 약점이라든 약점이라고 하겠다. 어쨌든 이 역서는 만해연구의 본격적인 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그 기틀을 잡아 준 데서 의미가 놓여진다.

한편 60년대에 송옥은 타골시와의 비교문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연구시야를 확대해 주었다. 이후 송옥은 만해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만해 연구를 학문적 기반 위에 올려놓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님의 침묵 전편해설」(과학사, 1974)은 그 중요한 한 성과라고 하겠다. 한편 백낙청은 「시민문학론」(「창작과비평」14호, 1969 여름호)을 통해서 만해를 근대적인 민중문학운동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만해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문학적 관

대체로 만해연구는 그 연구방향에 따라 불교사적 연구, 민족운동사적 연구, 문학사적 연구의 세 갈래로 나뉘 볼 수 있는데, 그 분포상 문학연구가 가장 대종을 이루는 반면 불교학적 연구는 아직까지 제일 미흡한 편이다.



교보문고의 '만해관련 도서전'

점, 학문적 관점에서 비평적 관점, 리얼리즘운동사의 관점으로 만해를 확대해간 데서 백낙청의 논의가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 무렵을 전후하여 송석래·김운학·최일수·김학동·김해성·김우정·고은·최원규 등의 문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70년대 문학연구의 한봉우리 형성

만해문학 연구는 70년대 들어서 더욱 본격화한다. 60년대 후반부터 제고되기 시작한 민족 주체성논의와 국학연구붐은 만해를 그 핵심에 두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70년대엔 김현·김윤식·김우창·김용직·염무웅·장호·박요순·유승우·임중빈·김종철·김열규·민희식·홍신선·박철희·오세영·윤계근·윤영천·정한모·문덕수·김상선·송혁·조동일·이인복·김신학·최동호·이명재·김영무·김재홍 등 거의 모든 문학연구가 비평가가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 현대문학연구의 한 봉우리를 형성하게 됐다는 말이다. 그 연구경향도 김우창류의 철학적 접근, 김윤식·김용직류의 문학사적 시각, 조동일류의 사상사적 시각, 염무웅 등의 민족적 시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됨으로써 만해문학연구는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되었다.

한편 이 무렵엔 임중빈의 「한용운일대기」를 비롯하여 고은의 「한용운평전」등 만해의 생애

사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만해의 생애는 출가 이전에 관해서 극히 제한된 술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출가과정이나 그 이후에 대해서도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실증적인 탐구에 애로가 적지 않다. 실상 불가에선 이처럼 생애를 기록하고 자취를 남기는 일조차 무상한 것으로 여기는 관습이 있어서 만해의 생애사를 정확히 재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더구나 구한말 풍운의 시대에 보잘것 없는 가문에서 태어나 그 야말로 초혼의 아내까지 버리고 생활의 방편을 찾아 출가했던 만해가 자신의 삶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자세하게 기록해두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하겠다. 따라서 이들 일대기와 평전은 사실에 대한 논증이 부족한 채 픽션화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데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아울러 이 70년대에 만해에 대한 특집이 잡지에 마련되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나라사랑」2집(1971. 4)의 「만해 한용운특집」은 연보를 비롯하여 불교인, 시인, 애국지사, 추모·회고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인 탐구가 제시된 것이다. 또한 「문학사상」4호에서도 「한용운특집」(1973. 1)으로 문학적인 탐구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집의 성과는 만해와 그 문학이 한국근대사와 근대문학의 핵심부분이며 가장 정채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교정 보는 일의 즐거움



교정 보는 일을 통해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 있는 저희들은
교정 보는 일을 통해 지식의 산에 오르고
교정 보는 일을 통해 지혜의 바닷가에서 그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스로 랜잡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닌 말로 돈을 주고 책을 사서, 시간을 들여 책을 읽어야만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 돈을 받아가며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4배의 경제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루종일 교정을 본다는 것은 아주 고되고 힘든 일이며
더욱이 책의 내용에 따라서는 정말 별 재미가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라도, 책을 읽으며 교정을 보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최소한 2배의 즐거움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우겨보기도 합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과 책을 만드는 즐거움이 함께 있는 집단 —
바른글방에는 이렇게 시시콜콜, 그러나 정확하게
교정 보는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출·판·전·문·집·단

바른글방

종로3가 피카디리 극장 옆 초동빌딩 2층
전화 764-4241 (대) / 764-4240 / 766-1947
팩시 744-9209

출판전문집단 바른글방 사람들은 책에 관한 모든 일들을
거뜰히, 믿음직스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편집 및 교정은 물론, 책의 기획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표지·본문출판광고 디자인과 전산·수동 입·출력, 그리고 제작전반에
이르기까지 숙련된 전문가의 솜씨로 대항해 드립니다.

바른글방에서는 이를 위해, 미려한 서체의 최신기종인
전산사식 편집·입력기 15대와 레이저 교정지
출력기·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를 자체보유하고 있으며, 일반 퍼스컴이나
워드프로세서로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위한 수동사식기와 중국어 간체자 자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만해특집
과 연구는 만해를 과장하거나 이상화하는 측
면도 없지 않았다고 하겠다. 이점에 비추어 윤
영천의 「형식적 영원주의의 허구」(「신동아」
1974. 4) 등이 만해문학의 취약점을 비판한 것
은 의미 있는 일임이 분명하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만해연구는 또다시 한
차원 도약한다. 그것은 대학원의 학위논문이
제출되기 시작하는 데서 근 살마리가 본격적
으로 열린다. 70년대에 부분적인 석사학위논
문이나 일부 박사논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부분적이거나 지엽적인 연구
범위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 먼저 이러한 기운
은 「한국문학학술회의」(동국대, 1980. 11)의
학술연구발표와 「한용운사상연구」1,2집(민족
사)의 집중적인 학술적 천착으로 분위기가 제
고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김재홍의 「한용운문학연구」(서울
대박사논문, 1981)가 본격적인 학위논문으로
제출되고, 이것이 출판됨으로써(일지사, 19
82) 만해문학연구는 새로운 차원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연구서는 연구사, 저작과 문
체의식, 판본연구를 기초로 하여 한시·시조·
소설 등 장르체계와 그의 상관관계를 연구하
고, 시집 「님의 침묵」의 구조분석(시형분석,
이미지분석, 은유론, 역설구조론 등)과 문학사
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천착함으로써 만해문학
의 구조적 특징과 문학사적 위치를 체계화한
데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다만 사상적인
접근이 부족한 것이 한계점 또는 미완의 문제
점으로 지적된다.

이어서 윤재근의 학위논문 「님의 침묵 연
구」(민족문화사, 1985)가 제출됨으로써 만해
문학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의 대상으로 빈번히
오르내리기 시작한다. 윤재근의 이 연구는 만
해 「님의 침묵」을 미학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
게 연구함으로써 심화된 만해문학연구의 가능
성을 새롭게 개척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만해의 삶
과 사상사적 천착이 전혀 도외시된 것과 문학
사적 의미 및 위치점검이 배제된 점은 문제점
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이 무렵을 전후하여 만해의 생애와 시
작품이 중고교 국정교과서에 수록됨으로써 국
민교육의 차원으로 만해와 문학이 확대된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미 70년대에 송옥
의 시 「님의 침묵」해설이 「고등국어」에 수록
됐었지만, 80년대에 김재홍의 편전 「만해 한용

운」이 「중학국어」에 다시 수록됨으로써 만해
와 그 문학은 전 국민교육의 차원으로 확대·
상승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밖에 80년대에 만해연구에 생애를 경주
하고 있는 전보삼을 비롯해서, 새문사의 「만해
한용운」(논저목음·신동욱편) 등 만해연구계
와 출판계의 노력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미 70년대초에 「한용운전집」(신구문
화사, 1973) 전 6권이 간행된 바 있지만, 80년
대에 이르러 「만해사상연구회」(김관호·전보
삼 등)가 활동을 시작하고 최동호의 「한용운
시전집」(문학사상사, 1989) 등이 활발히 간행
됨으로써 만해와 그 연구는 이제 국민적 차원
으로 상승된 것이다. 또한 고재석등 신진연구
가들이 보다 정밀한 논의를 전개하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결국 80년대는 만해문학연구가 학위논문의
차원으로 이끌어 올려지고 국민교육의 차원으
로 확대되기 시작한 데서 보다 큰 의미를 지니
는 것이 분명하다.

본격적 만해연구 기대

만해와 그 문학 및 사상은 이땅 근대사가 처
했던 온갖 고난과 갈등, 절망과 희망, 좌절과
극복의지의 중요한 한 표상이다. 만해의 문학,
민족운동, 불교를 포괄하는 밀바탕인 자유사
상·평등사상·평화사상·민족사상·민중사
상·혁신진보사상 등은 일제강점기는 물론 분
단의 오늘날에도 여전히 최상의 덕목이자 이
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만해가신 지 반세기가
가까운데도 그가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 목
매어 외쳐불렀던 인간애·민족애·생명애는
아직도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못한 형편인 것
이다. 그러기에 만해 연구는 이제부터 본격화
할 것을 기대해본다. 만해기념사업체도 새로
본격화해야 하고, 문학·불교·민족사적인 측
면에서의 종합연구를 위해 '만해학회'가 발족
될 것도 주창해 본다.

만해와 그 연구가 충격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다. 분단상황하에
서 파생되는 온갖 구조적 모순과 갈등 및 부조
리들이 만해의 자유·평등·평화·민족·민
중·혁신사상을 오늘에 되살림으로써 차원높
게 극복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만해를 참답게 배
우고 되살리는 길, 그것이 우리민족이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살마리가 되
리라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기대와 희망이 아
닐 것이 분명하다.